



불교 이래서 좋다



이현수 간호사

불교와 인연을 처음 맺은 건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다. 어머니는 매주 일요일 아침 잡자고 있는 나를 끼워 집 근처 표교원 어린이법회에 보냈다. 나는 중등부, 고등부를 거처며 꾸준히

생의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요즘 절에 자주 나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내가 게을러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때마다 나는 항상 '평상심시도'라는 남전스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되뇌인다. 도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속에 가지는 마음 바로 그것이라는 것. 일상 생활 속에서 내가 생

생활 일부분, 인생의 나침반

신행생활을 했다. 초중고 12년을 한결같이 매주 법회에 나갔고 사찰 수련회, 성지순례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녀서 절에 가면 일주문에서부터 반배를 하고 대웅전의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든다. 그래서 일까? 누가 나에게 불교가 왜 좋냐고 묻는다면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냥 한번 웃고 만다. 불교는 내 생활의 일부분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인

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넓게 보면 불자의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아닐까 싶다. 내가 생각하기에 일년 가운데 가장 빨리 지나가는 달은 1월이다. 어제가 새해라고 새롭게 마음을 다진 것 같았는데 벌써 마음은 나아해졌고 1월도 하순에 이르렀다. 되돌아보면 불심도 이와 같다. 처음 발심했을 때의 그 진지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느슨해진 나의 마음만이 존재한다. 올해는 초발심이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세기며 살아야겠다.

2003 '세계 물의 해'

물 절약, 작은 실천에서

유엔이 올해를 '물의 해'로 선포한 이유는 인구증가와 물 사용량의 증가, 수질오염 등으로 지구 전체가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3배나 되지만 좁은 땅덩어리에 비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물려 살아 1인당 연평균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2.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물 살림 홈페이지 제작, 어린이 포어·글짓

생활속 시민 참여 필요

자연보호 정신도 가져야

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엔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산업의 발달과 인구증가로 인해 우리나라도 유엔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 가운데 하나다. 연평균

기 공모전, 물 종합 박람회 등을 열어 물의 소중함과 절약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 모두의 실천이 필수적이다. 샤워는 짧게, 양치질할 때는 반드시 물을 곁에 받아쓰는 등 아주 작은 일들이 쌓여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門 달이지 않는 ‘우리만의 방’에서 만나자”

인천 불교청소년회관 23일 오픈

주택지구인 인천 가좌동 가장자리에 위치한 법명사 부부나포교원의 도로변 3층 건물. 겉보기에는 어느 상가 건물과 비슷하지만 이곳은 인근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도량이다. 생활영어, 공예 등을 배울 수 있는 청소년 지역문화센터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청소년

통해 경제관을 심어줄 계획이어서 주위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지난 23일 법명사 부부나포교원의 도움으로 200여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인천불교청소년회관을 개관했다. 불교 열세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천

국내 최초 성매수 청소년쉼터 설치

명상 교육, 아름다운 가게 등 운영

주택지구인 인천 가좌동 가장자리에 위치한 법명사 부부나포교원의 도로변 3층 건물. 겉보기에는 어느 상가 건물과 비슷하지만 이곳은 인근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도량이다. 생활영어, 공예 등을 배울 수 있는 청소년 지역문화센터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청소년

통해 경제관을 심어줄 계획이어서 주위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지난 23일 법명사 부부나포교원의 도움으로 200여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인천불교청소년회관을 개관했다. 불교 열세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천

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스님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성문화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미경 복지사와 함께 이번에 성매수 대상 청소년을 위한 부부나청소년 쉼터와 인천불교청소년회관을 개관하게 됐다.

인천불교청소년회관은 사찰 및 불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큰 특징. 국비를 지원받는 청소년 시설은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청소년 법당을 설치하고 자아존중심을 고취할 수 있는 참선을 응용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포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인천불교청소년회관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국비지원없이 자체 운영하게 됐다.

선일 스님은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짊어줄 중요한 계층이며 동시에 불교의 미래이기도 하다”며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청소년 포교에 종단과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문의(032)573-1318 후원계좌 국민은행 903801-01-034694 예금주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인천 불교청소년회관이 23일 개관했다. 사진은 선일스님이 회관 건물을 소개하는 모습.

파라미터 예산 3억6천만원 확정

22일 이사회, 원택스님 새회장



파라미터는 올해 조직 재정비와 함께 국제 캠프 내실화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진은 22일 열린 이사회.

파라미터 청소년협회(총재 도영)는 22일 조계종 포교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전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을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총 9명의 이사 가운데 위임

장을 제출한 스님을 포함해 도영, 원택, 지현, 혜자, 동광, 일철, 원해, 지홍 스님 등 8명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3년도 사업계획과 3억 6천만원의 예산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2003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파라미터는 올해 문화재 애호활동 활성화, 청소년의 참여와 자치활동 강화, 조직사업의 강화, 캠프의 내실화, 정부지원

캠프 내실화 등 5개 사업 정해

청소년 포교 매진 할 방침

청소년 사업 수탁 강화 등 5가지를 중점사업 목표로 정하고 청소년 포교에 매진할 방침이다.

신임 회장 원택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터뷰 3편) 김두식 기자

원종복지관, 청소년 기자학교 열어

기사쓰기·편집실무 교육 등 다양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갑표)은 22-23일 1박 2일간 경기도 양평 증미산 자연 휴양지에서 '2003년 청소년 기자학교(캠프)'를 개최했다.

올해가 3회째인 청소년 기자학교는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행하는 부천청소년신문 '터'를 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기획된 것. 부천청소년신문 '터'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 기자들이 편집, 현장 취재 등 신문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 만들고 있는 순수 청소년 신문이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기자학교는 기사쓰기, 취재방법론 및 편집 실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터' 청소년 기자인 지민희(부안고 1년)은 “그동안 청소년 기자들과 함께 직접 신문을 만들면서 청소년들의 고민을 나누고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보람을 느꼈다”며 “특히 이번 청소년 기자학교에서 신문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시 배우고 나서 보다 질 높은 청소년 신문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신문 '터'는 신문제작 및 청소년 기자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월말까지 제 4기 청소년 신문 기자를 공개모집한다.

명작 비디오 파일

빅

1998년 개봉된 패니 마살 감독, 톰 행크스 주연 영화 '빅'.

13살의 조쉬는 놀이공원에 갔다가 키가 작아 놀이기구도 못타고 놀림을 받는다. '총타'라는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 발견한 조쉬는 빨리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빈다.

다음날 30세의 어른으로 변한 조쉬를 본 엄마는 괴한취급을 하며 쫓아낸다. 집에서 쫓겨난 조쉬는 백발연 완구회사의 전산과 말단 직원으로 취직, 어린이의 시각에서 어린이가 원하는 장난감의 아이템을 기획해냄으로써 승진을 거듭하게 된다.

완구회사의 간부 수장은 그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어린 아이처

럼 행동하자 호감을 갖고 마침내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한다. 그러나 조쉬는 점점 어린 시절과 집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되는 데...

조쉬의 어른의 육체와 어린이의 정신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화염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는 비목다라 선인을 만나 찰나의 순간 수백생의 인생을 산다. 원래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선재동자는 수백생의 인생을 살기 전의 선재동자가 아니다. 조쉬 역시 어른이 되기 전에 동경했던 세계를 잠시 경험해 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나름의 깨달음을 얻었던 것은 아닐까.

강지연 기자

Advertisement for Avatar Center featuring a video file 'Big'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enter.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평' '심경'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 「명상 최면 지도사」 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영역(자연의식)의 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영역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 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원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 실시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태아영, 초산영, 빙의영, 축생영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스님, 의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검토했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수시접수

“단 한번 ‘명상 최면’으로 어린이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해결”

2002년 12월 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국제신문 12월 21일자 29면

부산일보 12월 21일자 30면

동아일보 12월 23일자 A 29면 보도>을 해결하는데 ‘명상최면’을 통하여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어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목격자가 최면상태에서 한번도 보지 않은 범인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렸다는데 있다. 최면상태에서 피술자는 범인의 양쪽귀(耳)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얼굴의 흉터와 얼굴 반쪽이 일그러진 것까지 뚜렷이 떠올렸다. 이런 초월적 현상은 일반 최면과 다른 명상최면으로 가능한 일이다.